

멕시코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연구 : 현황과 정책

- 멕시코시 -*

이종득(덕성여대 스페인어과)**

- I. 들어가는 말
- II. 한인 후손의 실태
- III. 민족 정체성
- IV. 문화 정체성
- V. 한인 후손과 한국(후기 한인 이민자)과의 관계
- VI. 맺는 말(정책 대안)

I. 들어가는 말

천 명이 넘는 한인들이¹⁾ 1905년 일포드(Ilford)호를 타고 제물포항(현재의 인천항)을 출발하여 멕시코 유카탄(Yucatán)반도의 에네켄(Henequén)농장으로 노동이민을 떠났다. 4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한인들은 모국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언어와 생활 풍습이 상이한 멕시코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다. 농장주의 횡포와 노동력 착취가 만연된 전근대적인 농장(Hacienda)에서 농노와 거의 유사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각 농장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72-BS2096).

** Jong-Deuk Lee(Duks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1jkdetra@hotmail.com), "The Identity of the Korean Descendants in Mexico City: Situation and Policy".

1)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이민자의 수는 출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논문을 참조할 것(이종득, 2003, 693-715). 1차 조사에서 참조하지 못한 일본 외무성 기록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의 수는 1,229명이다(재인용, 木村健二, 1983, 210).

둔, 고립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계약 만료 이후에 귀국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현지 언어의 습득이나 동화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악몽 같았던 계약노동에서 풀려났을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은 귀국할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을 위해 여러 농장을 떠돌아야만 했다.²⁾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들은 귀국을 포기하고 여러 도시로 제 각각 새로운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산하의 메리다지방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방회가 연대하면서 한인공동체의 결속력이 한 때 강화되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 사회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초기 한인공동체 내에는 미혼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멕시코 여성과의 결혼을 피할 수 없었고, 2세대 이후의 한인 후손들 사이에는 동족외 결혼 경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혼혈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경제적인 궁핍과 민족교육체계의 부재, 그리고 한인들 사이의 교류가 약화되면서 2세대 한인 후손들부터 급격하게 모국어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지방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던 한인 1세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1930년대 말부터는 한인공동체의 결속력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³⁾ 한인 2세대들은 모국에서의 삶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한국적인 생활양식과 멕시코 문화 사이에서 인종적인 갈등을 포함하

2) 1909년 당시에 멕시코 만사니이요(Manzanillo) 항구에서 한국의 제물포항까지의 여행비는 100원 이상이 들었다(신한민보 1909. 2. 24). 비싼 경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약이 끝난 이후에 20여 가족의 70여명이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가져간 금은과 같은 재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윤태현 1996, 92).

3) 목경지방회(목경은 멕시코시를 한자로 표기한 이름)는 1911년에 설립되었고, 1928년에는 목경청년회가 조직되었다(신한민보 1928. 3. 22). 본 회(회장 서운, 총무 김동필, 서기 이인여, 회계 김충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중운동 후원, 본국 정신 교양, 지식 개발, 실업증진, 우리글과 우리말을 보급, 토론회와 강연회, 청년의 영예를 증진.” 1930년 10월에 유명무실했던 목경지방회가 복구되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목경지방회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 중에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우리는 시대가 청년시대이니만큼 청년을 앞을 세우고 노년은 뒤에서 후원할 사” (신한민보 1930. 10. 30). 1930년부터 이민 1세대들의 퇴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7월에는 목경한인청년회가 창립된다(신한민보 1935. 7. 25).

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다. 그러나 현지의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2-3세대들의 생활과 의식구조는 빠른 속도로 멕시코에 동화되며 한민족의 전통문화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다. 현재 멕시코의 수많은 도시에 산재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 사회에서 인종·문화적으로 상당부분 동화되었고 멕시코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2년 계획 프로젝트(“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의 실태 조사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 -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하에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제 2부분(멕시코 한인 후손의 실태와 정체성)에 속하며, 2년 차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현 실태, 민족정체성(혼혈 실태, 한국어 상실정도, 민족의식), 한국전통과 문화와의 이탈정도,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한인 후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인회가 부재하고 주소록이 매우 부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와 확률표본법을 사용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설문조사는 한인 후손들의 거주지를 추적하거나, 개별 소개를 받아 한인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문대상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면담시간의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또한 각 연령대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성별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혼혈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게에서의 설문은 7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후기 한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인 후손들과도 접촉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인 후

4) 본 설문조사는 2003년(1. 16-2. 14)과 2004년(1. 19-2. 15), 2회에 걸쳐 멕시코시에서 실행되었다.

손들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⁵⁾ 후기 한인 이민자나 한인 후손들과 교류가 있는 경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져 설문조사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안배하였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한인 후손들과 접촉하였다. 설문조사의 실행은 본인의 가정방문과 전화조사(총 65건)와 한인 후손에 의한 가정방문과 전화조사(총 49건)로 이원화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이원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설문대상자의 수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었지만,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본인과의 질의와 응답에서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한인 후손과의 대화에서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인 후손 조사자에 의한 설문조사는, 현지방문의 어려움과 시간 절약을 위해 인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혼혈실태 조사에서 정확도가 떨어져 수시로 회합하여 정정하거나 지도를 해주어야 했다.

5) 한 예로, 한인 2세대인 페레사 이 소사(Teresa Lee Sosa, 1919년생)의 가계도를 분석해 보면, 아버지 이씨와 어머니 서씨는 7명의 자녀(아들 3, 딸 4)를 두었다(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이 그렇듯이 페레사도 부모의 한국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장녀인 빠스토라(Pastora)가 중국인과 결혼하고 나머지는 모두 멕시코인과 결혼했으며, 페레사는 7남매 중 3째이다. 그녀의 후손은 증손자(5세대)까지 이르고 있으며 총 24명이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그녀의 가계를 기준으로 이민 1세대인 그녀의 부모로부터 나온 후손의 수를 산정해 본다면 총 168명이 된다. $[24 \times 7 \text{ (2세대 자녀수)}]$. 다른 예로, 로사 마리아 기옌 김(Rosa María Guillén Kim, 1943년생, 3세대)의 가계는 구성원의 수가 적은 편으로 정확히 92명이었다. 반면에, 멕시코에서 구성원의 수가 제일 많다고 알려진 로사리오 유 이(Rosario Yu Lee, 1932년생, 3세대)의 가계는 가족의 수를 계산할 수 없으리만치 많았다. 이민 1세대인 할아버지 페드로 유(Pedro Yu)와 할머니 로사 김(Rosa Kim)은 5명의 자녀를 두었고, 2세대인 첫째 딸(Dolores Lee Moon)은 7명의 자녀를 두었다. 3세대인 로사리오는 장녀로 그녀에게서 퍼진 후손은 아들 6명, 손자 11명, 증손자 4명(6세대)으로 총 21명이었다. 2세대가 5명이고 3세대가 7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로사리오 가계의 가족 수는 총 735명이 된다 $[(21 \times 7) \times 5 = 735]$. 하지만 그녀의 집안이 2-3세대의 첫째 후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는 735명이 될 수 없다. 로사리오와 함께 계산해 본 결과 최소 300명은 넘었다. 한 가계의 가족 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친척간의 교류가 끊기거나 타 도시로 가서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의 수를 집계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인 후손들과의 관계조차도 단절되어 있는 한인 후손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고, 한인 후손들이 말하는 집계도 편차가 심해서 의미가 없었다.

II. 한인 후손의 실태

설문조사에 응한 한인 후손의 총 수는 114명(남: 56명, 여: 58명)으로 출생연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 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2명	3명	13명	12명	12명	21명	26명	19명	6명

각 시기별로 비교적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 한인 후손들을 세대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 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수	11명	46명	49명	8명

2세대의 한인 후손들이 비교적 많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부모가 1.5세대(성년 이전에 멕시코에 이민을 온 세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이들은 2.5세대로 분류하여야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주축이 3-4세대임을 알 수 있고, 출생연도 대비 세대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표 3>

세 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출생 연대 편차	1910-1940	1920-1980	1950-1990	1970-1990

예를 들어, 3세대의 경우 출생시기별 편차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출생연대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수	1명	7명	11명	8명	9명	6명	4명

같은 3세대의 한인 후손이라고 해도 시기별 편차가 거의 60년 가까이 나는 것은, 이민 1세가 이민 1.5세대의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 1.5세대의 후손은 연령에 비해 세대가 낮고, 홀로 멕시코에 온 미혼 성년이 이민 초기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후손들이 연령에 비해 세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가계의 막내 쪽 후손들은 연령에 비해 세대가 높고, 장남 쪽 후손들은 나이에 비해 세대가 낮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각 항을 세대별로 분류할 경우에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출생연도별 분류를 병행할 것이다. 참고로, 설문조사 중에 6세대가 있는 가정도 간혹 있었지만 모두 1-3세의 유아였다.

교육 수준을 묻는 질문에 성인 한인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설문에서 제외).

<표 5>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2 명	8 명	11 명	17 명	58 명	5 명

성인 응답자 99명중에서 63명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한인 후손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으며, 고학력 수준은 세대와 시기가 후기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생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자본도 없었던 한인들이 멕시코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주변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생존전략이 교육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은 멕시코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의 수를 조사한 1947년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학 졸업 1명, 건축학 졸업 1명, 의학 5년생 1명, 의학 2년생 3명, 건축 공학 2년생 2명, 예비대학 2년생 4명, 전기공학 전문 2년생

1명, 상업전문과 1명, 전기 속성과 1명, 중학교 2년생 3명, 중학 상과 2년 2명”(신한민보 1947. 9. 11). 한인 후손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은 한인 후손들이 단기간에 안정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중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발판이었다. 하지만 혼혈과 더불어 멕시코 동화를 앞당긴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인 후손들(총 105명)의 직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직업	수	직업	수	직업	수
학생	27명	경찰	2명	금융인	1명
회사원	17명	의사	2명	여행업	1명
가정주부	16명	건축가	2명	비서	1명
교사	10명	퇴직	2명	실업자	1명
상업	9명	경영인	1명	체육인	1명
화학자	4명	컴퓨터	1명	화장품업	1명
간판업	4명	투자 컨설턴트	1명	심리학 의사	1명

응답자 중에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젊은 세대들을 일정비율 내에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이며, 가정주부의 수가 많은 것은 가정방문 시에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고 직업 분포를 분석하여 본다면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 사회의 각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과 1938년도에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직업을 조사한 보고서와 비교해 본다면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사업종류: 시계포 및 폐물상점, 가라이쓰(자동차 가두는 집), 양화제조소, 화장품 분미소, 동포소유 자동차 15대; 직업: 시계 수선업 3명, 자동차 운전자 4명, 양화제조인 7명, 화장품 행상 6명, 들세 (필자 주: 사탕) 5명, 기타 고용 2명; 인구조사표: 남자 30명, 여자 22명, 유년 22명, 총 74명(신한민보 1929. 12. 19).
- 인구: 남 64명, 여 48명; 사업: 화장품 제조업 2명, 시계포 2명, 화장

품 상점 3명, 만년필 상점 1명, 껌 제조 2명, 정부사무원 남자 1명 여자 1명, 소개업 7명, 양해 제조소 4명, 자동차 운전자 1명, 상점 사무원 8명, 재봉소 2명(신한민보 1938. 11. 10).

1920-30년대 말까지 한인들의 직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전문직종을 통해 멕시코 사회에 진입한 한인은 거의 없었다. 한인들의 생활기반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⁶⁾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멕시코의 경직화된 경제·사회구조에 있으며, 또한 한국 혈통으로 인한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제약에도 있었다. 그러나 1962년 멕시코시에 한국대사관이 설치되고 1965년 6월에 개편된 “한국교민회”가 설립되었을 때 회장이었던 미겔 이(Miguel Lee, 2세대, 멕시코국립대학 교수)가 조사한 한인들의 직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 계리사, 기사 등의 직업인이 50명, 회사원이 80명, 안정된 중류 이상의 상업인이 7명” (현규환, 1967, 998). 영세한 개인사업을 하던 한인들의 수가 적어지고 전문직종을 가진 한인이 많이 생겼다. 또한 안정적인 봉급자 생활을 하는 한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인 후손들이 1960년대에는 멕시코 사회에 안착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통계이다. 2004년 현재의 한인 후손들이 1960년대에 비해 다양한 전문직종(의사, 화학자, 컴퓨터, 건축가, 금융인, 경찰, 교사)⁷⁾을 통해 멕시코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후손들이 많은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듯하다. 간판업에 종사하는 한인 후손의 수가 4명으로 집계된 것은 같은 형제와 인척이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한인 후손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달 평균 수입을

6) 목경 회장이었던 이인여는, “한인들이 20여년이 지나도록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개척력이 없으며 상업에 눈이 밝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라는 글을 신한민보 1927년 10월 6일자에 실었다.

7) 한인 후손들을 가정방문하는 과정에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여러 명 있었지만 멕시코 체류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다.

묻는 질문에는 많은 한인 후손들이 사적인 일이라며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응답한 사람들만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학생과 가정주부는 설문에서 제외).

<표 7>

금액(peso)	1-1,000	1,000-2,000	2,000-4,000	4,000-6,000	6,000-10,000	10,000 이상
수	1명	1명	5명	7명	11명	22명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한인 후손의 수가 많았고 계층별 안배를 염두에 두고 실행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필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전반적으로 한인 후손들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었고, 상류층에 편입하여 윤택하게 살고 있는 가정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인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은 중류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인 후손들의 높은 근면성과 뛰어난 현지 적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경직화된 경제·사회구조의 장벽을 상당부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멕시코시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3명).

<표 8>

만족	102명
보통	9명
불만족	2명

한인 후손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응답에는 한인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라

틴아메리카의 낙관적인 시각이 상당부분 내재해 있다고도 판단된다. 한인 후손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이 현지화되어 표출된, ‘현실 긍정의 낙관적인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방문한 가정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었지만 이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Ⅲ. 민족정체성

Ⅲ. 1. 혼혈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민족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조사로 혼혈 실태를 먼저 분석했다.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혈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⁸⁾

<표 9>

1세대(총 97건)		2세대(총 89건)		3세대(총 42건)		4세대(총 5건)	
동족 결혼	62건	동족 결혼	23건	동족 결혼	3건	동족 결혼	0건
부계 동족외 결혼	2건	부계 동족외 결혼	35건	부계 동족외 결혼	21건	부계 동족외 결혼	2건
모계 동족외 결혼	33건	모계 동족외 결혼	31건	모계 동족외 결혼	18건	모계 동족외 결혼	3건

1세대의 동족 결혼은 전체 97건 중 62건(62/97명)에 해당하고 부계 동족외 결혼은 2건(2/97명), 모계 동족외 결혼은 33건(33/97명)이었다.⁹⁾ 1세대에서 모계 동족외 결혼이 많은 원인은, 한인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미혼의 한인 남성 1세대나 1.5세대가 배우자를 멕시코의 여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

8) 이광규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혈연의식, 역사적 경험, 언어적 일체감, 동일 문화의 공유 등을 꼽았다(2000, 8).

9) 혼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 설문 항에서는 한 가계의 설문대상자 수를 7명 이내로 제한했다. 참고로,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에 순수 한인은 11명이다.

다.¹⁰⁾ 흥미로운 사실은 1세대 때부터 동족외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후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동족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5세대의 한인 후손은 $1/16(1/2 \times 1/2 \times 1/2 \times 1/2)$ 의 한민족 피를 가지고 있고, 6세대의 한인 후손은 $1/32$ 의 한민족 피를 갖게 된다. 이들을 한인 후손으로 인정하고 한인의 범주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국계” 멕시코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계 혈통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이들 모두를 한국혈통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로사 마리아 김(Rosa Maria Kim, 1946년생, 3세대)은 본인과 의 대담 중에 민족주의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의 어머니는 멕시코인과 결혼했다. 나는 독일인과 결혼했다. 그렇다면 나의 자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독일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해외동포재단법은 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라고 밝히며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 후손들의 혼혈과 관련된 정의와 범주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세대부터는 동족외 결혼이 급격히 상승한다. 한중원은 “재멕시코

10) 1917년 당시 메리다와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의 총 수가, 어린 아이 109명과 멕시코 현지 여성의 수 41명을 포함하여 총 513명이었다(신한민보 1917. 3. 15). 513명에서 어린 아이 109명과 멕시코 여성 41명을 제하면 한인 성인의 수가 363명이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결혼한 남녀를 다시 감하고 판단해 본다면, 멕시코 여성 41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민 초기부터 많은 한인 남성들이 멕시코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들의 성별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권병숙의 기록에 의하면 1905년 이민 당시에 성인여성의 수는 127명이었고 여자아이는 32명이었고, 반면에 성인남성은 689명이었고, 남자아이는 187명이었다(황성신문, 1905. 11. 15).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5%/85%였다. 또한 성인 여성 거의 대부분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혼 이민 1세대와 1.5세대가 1917년 당시까지 결혼할 수 있었던 한인 여성은 대략 32명 정도에 불과했다. 로사리오 유 이(Rosario Yu Lee, 1932년생, 3세대)와의 대담: 할아버지가 들려준 바에 의하면 멕시코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멕시코로 향해 중이던 선상에서 결혼을 했다. 할아버지는 유카탄 사낙따 농장에서 일을 했다. 농장생활 중인 어느 날, 할머니가 온 몸에서 열이나 농장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온 농장관리인이 채찍으로 할머니를 때려 농장으로 내몰았다. 호세 산체스 박이 그의 저서 『교포역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 것은 멕시코 정부의 감시와 통제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대개가 우리 한인끼리 결혼하고 있으며 일부분이 타국인과 결혼하고 있다”라고 했지만(The Korea migration news, 단기 4294. 3. 15) 2세대에서 동족결혼은 전체 89건 중 23(23/89명)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부계 동족외 결혼은 35건(35/89), 모계 동족외 결혼은 31건(31/89)이 이루어졌다.¹¹⁾ 2세대에서부터 동족외 결혼이 본격화된 것은 3세대부터 혼혈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세대부터 동족결혼이 급격히 감소하고 동족외 결혼이 증가한 원인은, 첫째로 한인들의 수가 적었고 서로 분산되어 살았던 탓에 순수 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과의 문화적 접촉 기회가 전혀 없었던 2세들이 현지 교육을 받으면서 멕시코 문화에 상당부분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민족 사회인 멕시코의 사회 분위기 또한 2세들의 동족외 결혼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한인 남성의 여성편력도 혼혈 증가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¹²⁾

3세대에서는 동족결혼이 전체 건수 중 3건(3/42명)에 불과했고 부계 동족외 결혼은 21건(21/42명), 모계 동족외 결혼은 18건(18/42명)이었다. 대부분의 3세대들이 동족외 결혼을 했으며, 4세대부터는 순수 한국인의 수가 극도로 감소하게 된다. 4세대의 경우 동족결혼은 전체 건수 5건 중 하나도 없었다. 설문 대상의 수가 극히 적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¹³⁾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한인 가정에서 5-6세대까지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 5세대부터는 100%의 혼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4-5세대의 경우에 많은 한인 후손들이 한국인의 피가 섞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멕시코인의 평균적인 얼굴 형태와 피부색에 근접해 있었다.

부계나 모계를 통한 혼혈은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에서 큰 문화적

11) 설문조사 중에 한국인이 중국인과 결혼을 한 경우도 2건을 발견했다.

12) 아벨 김(Abel Kim, 1940년생, 3세대)은 멕시코 여성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했다고 기억했고, 사라 김 아르코스(Sara Kim Arcos, 1924년생, 2세대)는 한국 남성들의 여성편력이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멕시코 여성을 첩으로 얻어 부인을 힘들게 한 남성들이 실제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멕시코에 온, 후기 이민자들 중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13) 본 설문이 출생시기별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가 낮아질수록 설문대상자의 수가 감소한다.

충격 없이 동화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혼혈로 태어난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시 지방회와의 관계망을 상실하고 한인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멕시코 사회로 급격히 동화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혼혈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멕시코시 지방회 운영의 폐쇄성과도 관련이 깊다. 물론, 각 지방회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적인 동질감을 유지시켜주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으며 외부로부터 한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조직체였다. 하지만 목경지방회가 이민 1세대와 순수 한인 후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혼혈 한인 후손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체계와 민족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¹⁴⁾

그러나 4세대까지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멕시코 동화현상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혼혈과 동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수 한인의 멕시코 동화는 구심점이 취약하여 한인 후손들을 결속시킬 수 없었던 지방회의 문제점에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각 가족의 생존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 1세대의 활동이 위축되는 1930년대 말부터 한인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했고, 민족의식이 있었던 2세대들의 열정이 식는 1950년대부터는 한인 공동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 한인 가족이 멕시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철저한 현지동화였다.

현재 멕시코시에는 각 지역으로 흩어진 한인 후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는 물론이고 연결망조차도 전무한 상태이다. 한인 후손들 간의 교류는 가까운 친인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3세대에 속하는 한인 후손들조차도 가게의 계보를 만들 수 없으리만치 4-8촌의 근황이나, 그들의 자녀 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4)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한인 후손들에게도 발견된다.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한인 2-3세대의 경우에 그들은 한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한인 사회가 이민 1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인사회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2세 3세 들에게는 마치 이국 풍경에 불과했다”(한준상 1986, 246).

Ⅲ. 2. 언어

언어는 민족정체성을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척도이다. 한 민족의 민족성과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언어를 통해 전승되고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수준을 묻는 질문에 한인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4명).

<표 10>

유창하다.	1명
유창하지는 않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0명
몇 개의 단어나 문장을 알고 있다.	49명
전혀 모른다.	64명

한국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14명 중 1명에 불과했고,¹⁵⁾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몇 개의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기억하는 후손은 49명(49/114명)이었고,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한인 후손의 수는 64명(64/114)이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멕시코시 거주 한인 후손들은 모국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2세대들을 포함하여 1910-1930년 사이에 태어난 18명 중 17명이 간단한 문장(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과 약간의 단어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어렸을 때는 제법 한국말을 구사했지만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오랫동안 없었던 까닭에 한국어의 일부가 고착화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한인 후손들이 언어를 상실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2세대부터 급격히 이루어진 혼혈과 관련되어 있다.¹⁶⁾ 부

15)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세대의 순수 한인 후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단어들을 어설피게 열거하는 수준이었다.

16) 가브리엘라 김 에르난데스(Gabriela Kim Hernández, 1959년생, 3세대)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어를 몰랐다고 증언했다.

계나 모계를 통해 멕시코 사회에 큰 문제없이 진입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인공동체와의 관계망이 느슨해지면서 실제 사용할 기회도 제한적이었고,¹⁷⁾ 이민 1세대들의 노력과 관심 또한 부족했다. 특히, 동족외 결혼을 한 이민 1세대 35명중 33명이 멕시코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이민 1세대의 한인 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혈 2세대는 멕시코인 어머니와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현지 교육을 통해 멕시코 문화에 동화되었다.

2세대부터 혼혈된 후손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다.¹⁸⁾ 하지만 흥미롭게도 순수 한인 혈통이 4세대까지 유지된 가정에서도 언어 상실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실, 목경희장이었던 이인여가 1927년도 신한민보에 기고한 글을 참조해보면 순수 한인 가정에서도 모국어 상실 문제가 지적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었다: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을 가서보면 한국말이라고는 한 마디 들어 볼 수 없고 또한 할 줄도 모른다. 우리글과 우리말로 된 신문 잡지는 읽을 줄도 모르거니와 이리저리 차내여 던지고 서반아식으로 된 멧덩구리 그림이나 허풍선이 그림 같은 것만 보고 있다(신한민보 1927. 10. 13).

한글학교가 1910년대 후반에 운영되기도 했지만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또한 교육체계도 부실했고 경제적인 문제는 폐교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927년 당시에는 한인 후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생활하였기 때문에 국어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었다(신한민보

17) 탬삐꼬(Tampico)에서 태어난 테레사 이 소사(Teresa Lee Sosa, 1919년생, 한국 이름 이진주)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 한인이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

18) 로사 마리아 기옌 김(Rosa María Guillén Kim, 1943년생, 3세대)은 자신이 어렸을 때, 한인 후손들과 어울렸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였다고 증언했다.

1927. 10. 13). 의식 있는 이민 1세대들에 의해 1946년도에 목경국어 학교가 신설되어 1월 15일 개교를 했지만, 총 학생 수는 30여명에 불과했다(신한민보 1946. 1. 24). 따라서 1949년도에 목경 집행위원장이었던 이경재가 한인 후손 2-3세대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49. 6. 23).

사라 김 아르코스(Sara Kim Arcos, 1924년생, 2세대)에 따르면, 어렸을 때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가르치는 곳이 없었고, 멕시코시 목경지방회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한인 후손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1966년 선교사로 파견되어 3년간 한인 후손들과 접촉하며 전도사업을 펼쳤던 우상봉목사에 의하면, 당시 멕시코시에 한인의 수가 500명 정도였고, 멕시코 전역에 1세대가 총 30명 가량 생존해 있었다. 현규환에 의하면, “1세대들은 한국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으나 50세 이하의 교민들은 한국어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쉬운 말만 겨우 할 정도였으며 30세 이하는 전혀 한국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1967, 998-999).

반면에, 현재의 한인 후손들은 한국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모국어를 상실한 근원적인 원인은, 급격한 혼혈과 한국문화와 접촉 없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화과정의 생존 전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민족의식의 결여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인 조상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총 응답자: 113명).

<표 11>

많이 느낀다	112명
조금 느낀다	1명
전혀 느끼지 않는다	0명

한인 후손들은 조상(혹은 조상의 일부)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고 있다.¹⁹⁾ 하지만 조상에 대한 긍지가 한인공동체 의식이나 민족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른 설문에 의해 설명이 되겠지만, 조상에 대한 애착은 민족애적인 측면과, 가족과 가계에 대한 자긍심이 혼합된 형태였다.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종적인 불이익이나 차별을 심하게 받았다면, 자신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집단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고 민족전통과 문화를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멕시코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혈이 진행되어 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2-3세대들은 사회적인 억압과 제재에 대항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하는 민족적인 동인이 부족했다. 현재의 한인 후손들도 멕시코 사회에 거의 완전하게 동화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경계”가 상당부분 와해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민족성을 회복하거나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많은 4-5세대의 한인 후손들은 피부색이나 얼굴 형태의 형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인종학적 갈등 문제는 거의 극복한 단계에 있다.

III. 3. 민족의식

한국과의 연결망이 단절된 고립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멕시코시 한인 후손들은 현재 100%의 혼혈률(4세대 이후 기준)과 100%의 모국어 상실률(2세대 이후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인 후손들의 민족의식과 한민족공동체 의식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당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19)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조가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한인 후손들도 10여명 가까이 있었다.

<표 12>

응답자의 수	총 115명
한국인	1명
멕시코인	84명
양국인	30명

한국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명(1/115명) 뿐이었다.²⁰⁾ 반면에 멕시코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3%인 84명(84/115명), 자신을 한국인이며 동시에 멕시코 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6%인 30명(30/115명) 뿐이었다. 흥미롭게도 이민 1세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이민 2세와 3세, 그리고 1910-1940년대에 태어난 순수 한인 후손들의 경우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응답한 순수 한인 10명 중 4명이 자신을 멕시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양국인(한국-멕시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멕시코인으로 생각하는 한인 후손들을 세대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수	4/총 11명	33/총 46명	39/총 49명	8/총 8명

2세대에서는 11명중 4명, 3세대에서는 46명 중 33명, 4세대에서는 49명 중 39명, 5세대에서는 8명 중 8명이 자신을 멕시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대가 멀어질수록 자신을 멕시코인으로 생각하는 한인 후손의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5세대에서는 전원이 자신들을 멕

20)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대답한 유일한 한인 후손은 유치원생 끌라우디오 보레고(Claudio Borrego, 1997년생, 4세대)였다. 끌라우디오의 혼혈관계는 다음과 같다: 1세대: 증조부모(순수 한인), 2세대: 조부(멕시코인), 조모(순수 한인), 3세대: 부(혼혈 한인), 모(멕시코인). 전화설문 도중에 우연히 연결이 된 끌라우디오와의 대화에서 인종적 정체성의 갈등을 다소 발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탓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시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자신을 한국인이며, 동시에 멕시코인으로 생각하는 한인 후손들을 세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세 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수	7/총 11명	14/총 46명	9/총 49명	0/총 8명

한인 후손들 사이에 민족의식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혼혈과, 오랫동안 한국과 단절된 데에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1927년도에 목경지방회 회장이었던 이인여에 의해 지적되었었다. “한인 후손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민족정신을 유지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당시로부터 10년 이후에는 한국소식을 물어보고 알고자 하는 한인 후손조차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신한민보 1927. 10. 6). 1949년에는 목경 집행위원장 이경재가, 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한인 후손 2-3세들이 한국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한국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49. 6. 23). 하지만 현재에는 응답자 중 26%만이 한인으로서의 귀속의식이 ‘이중국적의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한중원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민 1세대는 영주권을 얻었고, 2세대부터는 출생 시부터 시민권을 획득했다(The Korea migration news, 단기 4294. 3. 15). 한인 2세대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현지조사 중에 2건 발견했다. 1건은 1908년 9월 3일(농장생활 중)에 발급된 것으로, 아버지 김 씨와 어머니 박 씨 사이에 합법적으로 태어난 엘리아스(Elías de Kim y Pacci)가 메리다 호적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1건은 1915년에 한인 후손 2세가 멕시코인으로 호적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반면에 이민 1세대의 멕시코 국적으로의 귀화와 관련된 사료는 멕시코의 “국가 고문서 보관소(Archivo General de la Nación)”에서 5건을 발견했다. 1건은 1927년에 귀화를 신청했고, 2건은 1930년, 2건은 1931년에 신청했다. 이외에도 기타 서류에서, 이삭

이 강(Isaac Lee Cang, 1세대)은 1942년도에 이미 국적을 멕시코로 귀화한 상태였고, 마누엘 이(Manuel Lee, 1세대)는 1930년까지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²¹⁾

참고로, 세계 제2차대전이 반발하기 전까지 멕시코 이민서류 없이 생활을 하던 한인들도 꽤 있었고,²²⁾ 한인 중 일부는 일본인 국적이거나 중국인 국적의 멕시코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지조사과정에서 발견했다.²³⁾

“한국과 멕시코가 축구경기를 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한국팀을 응원하겠다고 답한 한인 후손은 약 11%(12/114명)이다. 세대별로 분류하면, 2세대 3명, 3세대 7명, 4세대 2명이다. 이를 출생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출생연대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2명	2명	2명	1명	0명	3명	1명	1명
순수 한 인의 수	0명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반면에, 멕시코 팀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한 한인 후손은 35%(40/114명)이다.

21) 한인 1-2세대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한 과정과 시기에 관한 부분은 차후의 논문에서 자세히 연구될 예정이다.
 22) 호세 산체스 박, 120-121. 또 다른 예로, 메리다시에 거주하는 펠리페 루고 가르씨야(Felipe Lugo Garcia, 1932년 생, 2.5세대)는, 이민 1세대인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 호적이 없어서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23) 한인 일부가 멕시코에서 일본인 국적 비자로 생활을 한 사실은 여러 차례 신한민보(예, 1942년 2월 26일자)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다. 2004년 현지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굴한 이민서류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한인 7명의 이민서류에서 태어난 곳은 한국으로, 국적은 일본으로 기록되어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1921년 쿠바로 이주한 한인 모두가 일본 국적으로 되어있는 멕시코 비자를 가지고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이 소사 마리아 테레사(Hi Sosa Maria Teresa, 1세대, 1891년생)”의 이민 서류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성국(1세대, José Maria Hi) 같은 경우는 국민회 입회증서와 일본 국적의 멕시코 비자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표 16>

출생연대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1명	5명	3명	5명	9명	5명	10명	2명
순수 한인의 수	0명	2명	1명	1명	0명	0명	0명	0명

반면에, 양국 팀을 모두 응원하겠다고 대답한 한인의 수는 54%(62/114명)이다.

<표 17>

출생연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2명	1명	6명	6명	6명	13명	17명	7명	4명
순수 한인의 수	2명	0명	2명	2명	0명	0명	0명	0명	0명

한국인으로서의 혈통적 귀속의식은 빈약한 반면에, 축구경기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어 앞의 설문(당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가?) 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이원 모델로 접근해 볼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혈연의식, 역사적 경험, 언어적 일체감, 동일 문화의 공유 등을 든다면 국민적 정체성은 영토의식, 한 주권 하에 있다는 정치의식, 하나의 경제체제 속에 있다는 공감대, 하나의 언어공동체를 가졌다는 언어공동체 의식, 하나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문화공동체의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두 정체성 모두 심리적인 영역에 속하면서 하나는 과거에 속하고 하나는 현실에 속한다(이광규, 2000, 8).

멕시코 한인 후손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멕시코이다. 또한 그들은 멕시코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고 멕시코 사회의 구성원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한인 후손들에게 있어서 민족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멕시코에 대한 국가정체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191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의 순수 한인 중에서도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한인 후손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멕시코를 응원하겠다는 순수 한인은 4명, 양국 응원은 6명이라는 사실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혈통을 인정하지만 멕시코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이 한인 후손들의 의식에 깊게 내재해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보다는 멕시코에 대한 국가정체성이 더 강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조사 중에 이루어진 한인 후손들과의 대담에서도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이 한국과의 혈연적 유대감은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 실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외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하나 있다. 1960년대 초에 멕시코 한인회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호세 산체스 박(순수 한인 2세대)이 한국을 다녀와서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멕시코를 떠난 후부터 나는 로봇처럼 느껴졌다. 내가 나 같지가 않았으며, 마치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게 나에게서 생소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모두들 친절하였으며 예의 발랐다. 그러나 나는 멕시코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멕시코에 와서야 시민이 된 것을 느꼈다(1985, 140).

호세 산체스 박의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2세대였던 그조차도 한국문화가 이질적이었고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14명 중 84명이 멕시코인이라고 답한 것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었을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혈통적인 귀속의식은 약하지만, 멕시코에서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존재 방식을 위협하지 않는, 문화적인 차원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한인 후손 12명은 모두 본인의 설문조사에서만 나왔고, 한인 후손이 직접 조사한 설문에서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축구경기에서 나타난 민족의식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설문자에 대한 혈연적인 배려였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한인 후손들 간에는 민족정체성보다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이 우선이며, 그 강도는 세대가 멀어지고 태어난 연도가 근자일 수로 높게 나타난다.²⁴⁾

민족의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총 응답자: 113명).

<표 18>

있 다.	36명
없 다.	77명

“있다”라는 응답이 32%(36/113명)이고, “없다”라고 대답한 한인 후손은 68%(77/113명)였다.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받은 한인 후손을 세대별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세 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수	5명	16명	14명	1명

현재 노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1910-1950년대의 순수 한인 11명 중 5명은 외국인으로서의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으로서의 느낌을 받은 순수 한인 후손들이 경험한 정도는 심각 1명, 보통 1명, 미약 3명이다.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한인 후손들을 출생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4) 어렸을 때에 한인회에 참석하기도 했었다는 마리아 마르티네스 이(Maria Martinez Lee, 1953년생, 3세대)는 자신의 아들이 결코 한국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표 20>

출생연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1명	2명	5명	4명	5명	5명	5명	4명	5명
순수 한 인의 수	1명	0명	2명	1명	1명	0명	0명	0명	0명

멕시코시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고 느낀 한인 32%는, 자신을 한국인이며 동시에 멕시코 인이라고 답하며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보여준 26%와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26-32%가 인종문제로 인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느낀 강도는 “심하다” 4명, “보통이다” 13명, “경미하다” 19명이었다. 한인 후손들에게 있어서 인종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약하며 심리적으로는 멕시코 사회에 상당부분 동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하게 인종적 갈등을 느낀 한인 후손들은 순수 한인 피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양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한 예로, 현재 멕시코 프로레슬링 협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펠리페 한 이(Felipe Han Lee, 1932년생, 2.5세)는 어렸을 때에 멕시코 아이들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놀려서 많이 싸웠다고 대답했다. 현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시에는 외국인으로서의 이질감을 매우 심하게 느꼈었다고 회상했다.²⁵⁾

25) 펠리페 한 이(Felipe Han Lee)는, 7세에 멕시코로 이주하였다가 1955년에 귀국하여 한국의국외어대학교 서반어과 교수로 역임했던 한종원의 아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와 일찍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식당에서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아버지를 8-9세 경에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펠리페는 멕시코에서 프로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고, 서울에 와서 김일 선수와 경기(1972년 경)를 갖기도 했다. 김일 선수가 자신보다 몸무게가 더 무거웠고 기량이 뛰어나서 게임에서 졌다고 회상했다. 30년이 넘은 단 한 번의 추억임에도 펠리페는 많은 것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 왔을 때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다. 펠리페 자신이 아버지를 찾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살고 있었던 한종원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장충체육관에서 김일 선수와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펠리페는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했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다. 멕시코인과 재혼한 어머니와 외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나이가 들은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긍지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일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총 응답자: 112명).

<표 21>

많이 알고 있다.	17명
조금 알고 있다.	66명
모른다.	29명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응답자의 15%(17/112명)였고, 약간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후손은 59%(66/112명)였다. 반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26%(29/112)에 달했다. 한인 후손 74%가 관심이 많던 적던지 간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3명).

<표 22>

원한다.	83명
원하지 않는다.	16명
모르겠다.	4명
생각해보지 않았다.	10명

한인 후손의 73%(83/113명)가 남북통일을 원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경우도 14%(16/113명)에 달했다. 흥미롭게도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16명은 모두 멕시코 한인 후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만 나타났다.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한인 후손들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은 없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폐쇄화된 독재국가, 또는 심각한 경제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상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혈통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민족 정체

성을 거의 상실했고 한국인으로서의 귀속의식 또한 미약했다. 그러나 한인 후손 74%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73%가 남북한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IV. 문화 정체성

한 민족의 정체성은 혈통과 언어뿐만 아니라 민족 집단의 전통이나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이 한민족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본 항에서는 한인 후손들과 한국의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전통의식을 지키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총 응답자: 122명).

<표 23>

지킨다.	16명
가끔 지킨다.	8명
지키지 않는다.	98명

“지킨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명(16/122명)이었고 “가끔 지킨다”는 8명, “지키지 않는다”는 98명이었다. “지킨다”라고 응답한 16명 중에서 3명만 환갑정도의 한국 전통을 언급하였을 뿐, 나머지 13명과 “가끔 지킨다”라고 답한 8명 모두,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광복절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구정, 추석, 한식이나 제사와 같은 한국의 문화 전통은 한인 후손 사이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멕시코시에 한인 조직체가 결성되어 있었을 당시에, 한국의 고유 명절은 한인공동체 전체의 행사가 되어 연례 축제형태로 발전되었었다. 또한 결혼식과 환갑도 흩어져 살고 있던 한인들의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한 예로, 1935년 1

월 14일 박경선의 회갑연이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한인동포 중 3-4명만 참석하지 못하고 모두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부조금과 선물을 했다.²⁶⁾ 하지만 1세대들이 거의 사망한 1950년대부터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하여 회갑연 등과 같은 한인 사회의 전통 풍습이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에는 3.1절 행사, 멕시코 독립기념일, 신정 새해, 광복절 행사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만 남았다. 60년대 후반부터는 한인 후손들 사이의 접촉이 현격히 줄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 후손들과의 관계는 3.1절 행사와 8.15 행사 두개로 축소된다.²⁷⁾

현재 멕시코시에서는 재 멕시코한국대사관과 후기 이민자 조직체가 함께 주체하는 광복절행사만이 유일하게 한국과 한인 후손들이 접촉하는 공식행사로 남아있다.²⁸⁾ 그러나 2003년도 광복절행사에는 15명의 한인 후손만이 참석할 정도로 매우 침체된 상태이다. 게다가 김익주의 손자인, 아벨 김(Abel Kim)이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어린 한인 후손들은 한국 전통은 물론이고 3.1절이나 광복절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26) 부조금과 선물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상씨 동부인 30원, 이건설씨 동부인 25원, 김수권씨 동부인 20원, 이인여씨 동부인 10원, 꽃 한 묶음, 서윤씨 동부인 10원, 김상옥씨 동부인 5원, 윤은섭씨 동부인 두루마기 1벌, 윤 레베카양 수건 3벌, 이준혁씨 동부인 안경 1개, 우유 한 병, 무대소 젓꼭지 1개, 이 마리아양 덧저고리 1벌, 이명원씨 동부인 양말 2벌, 화초 1분, 유안식씨 닭 2마리, 서춘동씨 바보(필자 주: 오리) 1마리, 안인식씨 맥주 1개, 이 놀라씨 덧저고리 1벌, 김엘니오씨 지갑 1개, 목경지방회 가화 1벌, 이종태씨 따님 형제 비단 목도리 1개, 김상옥씨 따님 수건 3벌, 꽃 한 묶음, 김구복씨 동부인 꽃 1벌, 이 루차양 고희바라 1개, 한 에마 화병 1개, 한 펠리페 재떨이 1개, 목인 자녀(한 펠리페의 자녀) 꽃 3묶음과 과자 한 개, 서삼여씨 술 1벌, 꽃 1 묶음, 목국 부인 수건 4벌, 꽃 1묶음, 이경제씨 동부인 포도주 1벌, 서온씨 동부인 수건 6벌, 김동철씨 동부인 양말 3벌, 유순명씨 바바야 1개(필자 주: Papaya), 이상봉씨 포도주 4벌, 김익주씨 동부인 큰 꽃 1광주리, 이윤용씨 따님 세베라 적삼 1벌, 타레 버선 1벌, 색동저고리 1벌; 베라끄루스에 거주하는 유기린씨 동부인 적삼 가음 1벌, 베라끄루스에 거주하는 김봉섭씨 동부인 적삼 가음 1벌; 물질이외에 고역으로 도우신 분: 이용상, 이건설, 김성규, 전유희, 이용상 부인, 이건설 부인, 윤은섭 부인, 이명원 부인, 김상옥 부인, 이준혁 부인”(신한민보 1935. 1. 24).

* 필자 주: 부조금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폐단위 “원”은 멕시코의 화폐단위 페소(peso)이다.

27) 본 내용은 호세 산체스 박의 저서 『교포역실』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이다(1985, 173).

28) 3.1절 행사는 메리다에 있는 유카탄한인회에서 개최하며, 매년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직원이 본 행사에 참석한다.

반면에, 멕시코의 전통적 행사인, 부활절이나 망자의 날(한국의 제사와 같음, 11월 1일과 2일)을 기념하는 한인 후손의 수는 98명(98/105명)이었고 기념하지 않는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인 설날(구정)과 추석을 지키는 한인 후손들이 거의 없었지만, 한인 후손들 대부분이 부활절과 망자의 날과 같은 멕시코의 경축일을 지키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손들의 생활양식과 문화 양태가 멕시코에 거의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역사나 유명 인물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2명).

<표 24>

많이 안다.	12명
조금 안다.	38명
모른다.	62명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후손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12명이 많이 안다고 응답하고 38명이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것은, 그들이 한국 역사나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관심의 끈을 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질문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좋아하는 한국음식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한인 후손 112명 중 111명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이 있다고 답을 했다.

한인 후손 4명이 중국음식인 찹수이를 한국음식으로, 1명이 일본음식인 초밥을 한국음식으로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한인 후손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다음과 같다(복수응답).

<표 25>

김 치	83명	불고기	44명	밥	22명	김 밥	18명
전	16명	만 두	16명	잡 채	15명	고추장	14명
국 수	12명	장조림	11명	깍두기	5명	갈 비	3명
콩자반	3명	떡	2명	나 물	2명	식 혜	1명
비빔밥	1명	떡 국	1명	생 선	1명	라 면	1명

한인 후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한인 후손들이 김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한국음식의 상징으로 김치를 기억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였다. 현재에도 가끔 김치를 만들어 먹는 집이 몇 집 있었다.

다음은 불고기, 밥, 김밥, 전, 만두, 잡채, 국수, 장조림 등의 순서였다. 거의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이 한국음식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한 한국음식을 시식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⁹⁾

사라 김 아르코스(Sara Kim Arcos, 1924년생, 2세대)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국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지만 현재는 생일이나 가족이 모이는 주말에 한국음식을 별식으로 준비한다. 사라는 자녀와 손자들이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즐거워했다.

또한 한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전혀 문외한인 신세대 후손들조차 한국음식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재 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광복절행사에서 먹었던 한국음식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가정은 현재까지도 주말이면 가끔 한국 음식을 특별 요리로 만들어 먹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로사 마리아 기옌 김(Rosa María Guillén Kim, 1943년 생, 3세)은 현재까지도 집에서 고추장(시각적으로는 된장과 유사했고, 덜 삭인 매운 맛이 있었다)을 직접 담가 먹고 있었다.³⁰⁾ 된장을 좋아한다고 답한 한인 후손이 1명도 없었다는 사

29) 바네사 바손 김(Baneza Bazón Kim, 1979년생, 4세대)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어는 못했지만 만두, 전, 밥 같은 한국음식을 많이 요리했었다고 기억했다.

30) 필자가 유학 중이던 1991년, 멕시코시 남쪽의 한 식당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었다. 이민 1.5세대였던 그녀는 내게 어눌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

실이 매우 흥미롭다. 아마도 제조과정이 길고, 발효하는 과정에 나오는 냄새로 인해 한인 사회에서 사라진 듯 하다.

중요한 사실은 한인 후손들 사이에 한국 음식은 주식이 아니라 별식이었다. 한인 1세대는 한국음식만을 고집했지만³¹⁾ 한인 2세대들부터는 멕시코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미국에 거주하던 한 한인이 멕시코를 여행하고 쓴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나서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그 혈통과 정신은 순전한 한국 사람이로되 그 말과 버릇은 절반 멕시코인이라, 팔밥에 김치가 좋은 줄 모르고 또르띠야(필자 주: tortilla)가 맛있다는 말을 한다”(신한민보 1927. 11. 3).

반면에 “한국 노래를 아는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복수응답했다(있다 72명, 없다 41명). 한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 노래는 다음과 같다.

<표 26>

애 국가	51명	아 리 랑	22명
찬 송 가	1명	민요(잠바구야)	1명
현대노래	5명(코요테 노래를 아는 사람 2명 포함)		

응답한 한인 중 45%(51/113명)가 애국가를 기억했고 19%(22/113명)가 아리랑을 기억했다. 하지만 완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60세 이상의 2-3세대는 한국의 민요 가락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가사와 노래제목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사실, 한국의 전통 음악은 한인 사회에서 명절이나 회갑연에서 자주 불리어졌다. 1935년에 있었던 박경선의 회갑연에서 “한목청년 남

람은 김치와 고추장을 넣어서 밥을 쓱쓱 비벼 먹어야 되.” 2004년 현지조사 중에 그녀의 딸을 우연히 만났고, 그녀가 1992년에 사망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외대의 우덕룡 교수와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출신인 멕시코 교민, 장기철이 그녀의 집에 하숙생으로 기거하기도 했다.

31) 페레사 이 소사(Teresa Lee Sosa, 1919년생, 2세대)에 따르면, 이민 1세대인 자신의 부모들은 한국음식만 먹었다고 회상했다.

녀들이 쌍쌍으로 춤을 추었고, 방 안에서는 노인들과 장년의 한인들은 김익주가 만들어 두었던 북, 장구, 소고 등으로 선소리, 앉은소리, 앞산타령, 뒷산타령, 연변가, 제비가, 방아타령, 육자 박이엄자, 박이알으랴 등등 즐기었다”(신한민보 1935. 1. 24).

1943년에 문창홍이 고 최정식의 딸과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피로연에서 기엘미나가 “망국의 부활”과 “나의 고향”을 불렀다(신한민보 1943. 3. 25). 1949년에도 목경지방회에서 3.1절 행사를 개최하고 무도회를 열었는데 “노인들은 한국 춤과 노래로 즐기고 청년들은 서양 무용으로 즐겼다”(신한민보 1949. 3. 10).

신한민보가 1960년대 초에 폐간되면서 한인사회의 기록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민 1세대가 생존해 있던 1960년대까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가 명절이나 각종 행사에서 간헐적이지만 불리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세대 5명이 한국의 젊은 인기가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제 2차 현지조사를 하던 2004년 1월-2월 사이에 멕시코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다.

2년 전 멕시코 TV에서 “이브의 모든 것(장동건, 김소연 주연)”과 “별은 내 가슴에(안재욱, 최진실 주연)”라는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한류 열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동건과 안재욱을 좋아하는 팬이 늘면서 한국과 관련된 팬클럽이 현재 4개가 생겼다. 재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팬클럽의 활동을 장려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월 27일 “역동적인 한국으로의 여행”이라는 행사를 대사관에서 개최했다.

“한국 물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3%(83/113명)가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0명이었다.

한인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들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열쇠고리, 장신구, 토산품	34명	전자제품	11명	인 형	11명
옷	9명	부 채	8명	책 (대사관 홍보책)	6명
접 시	5명	주전자	4명	북	2명
가 구	2명	종	1명	보석함	1명
가 방	1명	병 풍	1명	재떨이	1명
티셔츠	1명	구 두	1명	가 발	1명
태극기	1명	꽃 병	1명	시 계	1명
태권도복	1명	젓가락	1명	장난감	1명
그 림	1명				

한인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다양했지만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각종 열쇠고리나 토산품과 같은 장신구와 인형이었다. 현재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은 높은 혼혈률과 모국어 상실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로부터 이탈되어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상실하고 멕시코인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73%가 한국물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강한 민족애착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 중 약 10%(11/113명)의 한인 후손이 한국제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은 각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다. 한인 후손 조직체가 없으며 한인 공동체 또한 오래 전에 사라졌다. 또한 그들 간의 교류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 사회에 진출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 이후에도 민족애착이 문화 형태의 흔적으로 잔류해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표출된 문화적인 유대감과 관심이 한인 후손들의 전반적인 집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네스트 켈너에

따르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민족정체성의 범주에 포함된다(1988, 16).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민족애착을 실질적인 민족 정체성과 동일시하기보다는 민족에 대한 관심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족애착이 한국의 문화적 형태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인 후손들의 생활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²⁾ 문화 현상이 어느 정도의 혈연에 근거해 있고, 민족의식의 상징으로서 자신의 ‘한 부분’을 방어하는 ‘집단적인 문화 의식체계’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문화 상징이 상호 관계망의 토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인 후손들을 강력한 민족적 유대감이나 동질감으로 결속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한인 후손들 사이에 혈통이나 언어, 역사와 전통문화와 같은 민족적 정체성이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미, 여가 등의 ‘문화적인 차원’으로 전이되거나, 전이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인 후손들이 직접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한민족공동체에 재편입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민족은 민족공동체의 특성인 고유의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왔다. 또한 민족성을 변하지 않는 실체로 믿으면서 민족성원 내부의 고유의 특성과 생활양식을 정형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문제점인 배타성과 민족주의의 주창에는 정치와 같은 의도성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Nairn 1981, 244-246).

다시 말해, 한국의 민족 고유특성과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인종·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재단하려는 시도의 이면에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욕망과 의도가 내재해 있지 않은가를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칸(Herman Kahn)과 영국의 파이후

32) 참고로, 민병갑이 정의에 따르면, “한 소수민족이 자기 민족끼리 잦은 접촉을 갖고 그들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며 민족의식(identity)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통틀어 Ethnicity라고 말한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이민 집단(민족)이 이민하여 정착한 나라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며 그 나라의 사람들과 사회접촉을 증가시키며 적응해가는 현상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한다” (1991, 177).

(Hamilton Fyfe)같은 학자들은 민족성은 허위이며 환상으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분명, 민족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적인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중심부에 대한 환상을 깨야한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은 혼혈을 통한 다민족과의 공존 속에서 멕시코의 역사와 사회 환경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앞으로 그들의 한민족의식은 크게 강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들에게 민족 개념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멕시코 인들과 공존하며 자신들의 민족의식과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문화적 정체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인 후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유가치를 발견하고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적 틀’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인 후손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는 피상적이며 단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V. 한인 후손과 한국(후기 한인 이민자)과의 관계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한인 후손은 응답자 중 17%인 19명이었다.

반면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95명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한인 후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³³⁾

33) 이민 1세대들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조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다. 한 예가, 멕시코시에서 금은방을 경영했던 이인여이다. 부모와 동생을 멕시코시에 두고 귀국하여 몇 년간 있다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기도 했다(신한민보 1926. 12. 9). 1938년에는 부인이 한국에서 사망하자 홀로 남은 자녀들을 멕시코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38. 3. 24). 이인여는, 현재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장기철의 장인, 이순여의 친형이다.

<표 28>

출생연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수	2명	1명	2명	1명	1명	2명	6명	1명	3명
순수한인의 수	2명	0명	1명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한인 후손들 사이에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관심이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방문이 근원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못했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지도 못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친척을 찾는 경우도 없었다.³⁴⁾ 그러나 1970년대에 태어난 한인 후손 6명이 한국을 방문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한인 후손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잘 나타난다(총 응답자: 95명).

<표 29>

방문하고 싶다.	92명
방문하고 싶지 않다.	1명
모르겠다.	2명

응답한 한인 후손 중 약 97%(92/95명)가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 했다. 한국 방문을 원하는 한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은 <표 37, 39, 40> 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한국정부(주 멕시코 한국대사관)가 한인 후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총 응답자: 113명).

34) 테레사 소사(Teresa Sosa, 1919년생, 2세대)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 한국을 여행했다. 로사 마리아 기옌 김(Rosa María Guillén Kim, 1943년생, 3세대)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지진학을 공부하던 동생을 방문했을 때에 한국도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던 고향도 모르고 친척도 어디에서 사는지 몰라 단순한 방문에 그치고 말았다.

<표 30>

관심이 많다.	5명
보 통	19명
조 금	37명
전혀 없다.	47명
접촉이 없어 모르겠다.	5명

생각보다도 많은 한인 후손들이 재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활동을 침묵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한인 후손 스스로 한인 후손들을 결집시키려는 적극적인 활동은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대사관이나 후기 이민자 한인회에서 각종 행사에 자신들을 초대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대사관에서 나누어준 한국에 관한 각종 홍보 책들을 많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³⁵⁾ 대사관과 후기 한인 이민자 한인회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대사관의 행동이 소극적이고, 광복절행사에 제한된 한인 후손들만 선별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인 후손도 10여명이 있었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거의 대부분 2-3세대에서 발견되었다.

“한국어(역사와 문화)를 배울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3명).

<표 31>

있 다.	85명
없 다.	13명
생각해 보겠다.	12명
모르겠다.	3명

응답자의 대부분인 75%(85/113명)가 한국어와 역사, 문화 등을 배우고 싶어 했다. 배우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13명 중에는 연로하여

35) 로사리오 유 이(Rosario Yu Lee, 1932년생, 순수 한인 3세대)는 한국대사관이 한국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한인 후손들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해주었으면 했다. 손자와 증손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대답한 2-3세대의 한인 후손이 5명이 포함되어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인 후손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외국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나 역사,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정체성과는 관계가 적은, 혈연에 근거한 문화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문화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국어(역사와 문화)를 자녀에게 가르칠 의향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0명).

<표 32>

있 다.	80명
없 다.	11명
생각해 보겠다.	6명
모르겠다.	13명

응답자 중 약 73%(80/110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은 한인 후손들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인 관심과 문화정체성이 여건에 따라 자식들에게도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후손들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이전에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의 관계와 그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시에서 실제로 접촉하고 교류를 해야 할 대상이 후기 한인 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총 응답자: 112명).

<표 33>

있 다.	31명
없 다.	81명

응답한 한인 후손의 28%가 (31/112명)가 후기 이민자와 접촉이 있었다. 접촉의 빈도는 :

<표 34>

주 1-2회	4명
월 1회	9명
6개월 1회	8명
연 1회	10명

후기 한인 이민자와 비교적 자주 접촉하는 한인 후손은 약 12%(13명)에 불과했다. 주 1-2회에 걸쳐 후기 이민자와 접촉하는 한인 후손은 3세대 1명, 4세대 3명이었다. 월 1회의 접촉을 갖는 사람은 3세대 5명, 4세대 4명이었다. 후기 이민자와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세대는 3-4세대이다. 나머지는 한국대사관과 후기 한인 이민자 조직체가 함께 주최하는 광복절행사에서 후기 이민자들과 접촉한다고 답했다. 후기 이민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접촉빈도와 관계없이 세대별로 분류하면 2세대 6명, 3세대 15명, 4세대 10명이었다. 위의 설문을 통해 한인 후손들과 후기 한인 이민자와의 관계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수는 관계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인 후손 4명이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 주 1-2회의 접촉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기 한인 이민자와 접촉이 없는 한인 후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모두가 접촉할 기회가 없다고 대답했다(81명). “원하지 않는다”와 “관심이 없다”에 응답한 한인 후손은 1명도 없었다. 하지만 한인 후손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후기 이민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았다. 한 예로, 펠리페 한 이(Felipe Han Lee)같은 경우는 후기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동네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자 간에 접촉이 전혀 없었고, 후기 이민자들 또한 그가 한인 후손이라는 사실조

차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한인 후손들과 후기 이민자들이 서로 집을 방문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멕시코시에서 매우 드물었다. 극소수의 후기 이민자 몇 명(장기철, 서동수)이 한인 후손들과의 접촉이 있고, 광복절행사 등에 한인 후손들을 모으는 연락처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조사 중에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한 쪽도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단순한 민족적 감성으로 접근하기에는 언어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상이하여 융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한인 이민자와의 접촉을 시작하거나 접촉을 늘리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한인 후손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총 응답자: 112명).

<표 35>

원한다.	96명
원하지 않는다.	5명
생각해 보겠다.	10명
관심 없다.	1명

응답한 사람 중 86%(96/112명)가 후기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원하거나 접촉의 빈도를 늘리고 싶어 했다. 한인 후손들이 후기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한인 후손들을 한민족공동체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세대까지 이어진 한인 후손들과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후기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는 명백히 이질적인 장벽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이 혼혈 상태이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기 이민자들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문화가 상이한 한인 후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후기 이민자들도 많지 않았다.

한인 후손들에게 기존에 존재했던 한인 후손 조직체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총 응답자: 112명).³⁶⁾

<표 36>

있 다.	18명
없 다.	94명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한인 후손은 18명(2세대 1명, 3세대 9명, 4세대 7명, 5세대 1명)인 반면에, 경험이 없다 라고 응답한 한인인은 94명(2세대 10명, 3세대 37명, 4세대 39명, 5세대 8명)이다. 한인 후손 조직체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약 16%(18/112명)에 불과했다.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열심히 참여했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후기 이민자와의 관계 재개에 회의적인 사람은 총 16명이었다(접촉을 원하지 않는다 5명, 생각해 보겠다 10명, 관심 없다 1명).

한인 후손들이 후기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한인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한인 후손과 후기 이민자의 한인회가 통합되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통합되길 원한다 102명, 원하지 않는다는 6건이었다. 응답자의 94%에 이르는 압도적인 후손들은 한인 후손과 후기 이민자들이 통합된 하나

36) 목경지방회가 설립된 것은 1911년이였다(신한민보 1934. 5. 10). 안창호 선생이 방문한 1917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활력을 찾기도 했지만 1923년 이후부터는 유명무실해졌다. 1927년에 목경지방회가 부활되었고(신한민보 1927. 3. 31), 1940년대 전반기에 제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지방회의 활동이 왕성했지만 전쟁이 종결되면서 한인들은 다시 빨갱이 흩어졌다. 1955년에는 멕시코 도착 5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렀지만 회비를 내는 한인들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던 한인회관을 비워주어야 했다(호세 산체스 박, 1985, 129).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한인회는 거의 잊혀지고 방치된 상태였다. 1961년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 영사가 멕시코와의 국교수교를 위해 멕시코시에 도착했을 때에, 한인 후손 30-40명이 모여 “한인회(Cormex, Coreano-mexicano)”를 조직하였다. 회장은 호세 산체스 박이었다 (호세 산체스 박, 1985, 131).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교가 1962년 1월 26일 수립되었고,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인 후손들이 한인회 회장을 맡으며 활동해 왔다. 그러나 1980년부터는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회 회장을 맡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에는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회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후기 이민자 중심의 조직체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한인 후손의 한인회는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곧 사라졌다.

의 한인회를 만들자는 데에 동의했다. 통합된 한인회를 원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복수응답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았다.

<표 37>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47명
같은 민족으로 동질성(뿌리)을 되찾기 위해	37명
힘을 합친다면 멕시코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명
길거리의 동양인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명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이 뿌리를 찾겠다는 대답보다 많았다. 문화적인 동인이 민족적인 요소보다 조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는 한인 후손들의 의식은, 공통의 조상을 두었다는 혈연적인 동일성에 있는 것이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뿌리를 찾으려는 한인 후손들의 목적은 자신의 근원을 확인해보려는 의도이지, 후기 이민자들과 같은 한국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같은 생활방식과 가치관으로 환원하려는 생각은 없다. 헤르히네 리사르디 이(Gergine Lizardi Lee, 1968년 생)는 후기 이민자들과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6명의 한인 후손들이 한인회의 통합을 반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1명은 복수응답).

<표 38>

너무 먼 친척이다.	1명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1명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다.	1명
후기 이민자들끼리만 결속이 되어 있어서 한인 후손은 소외감을 느낀다.	1명
잘 모르겠다.	4명

적은 표본이지만 위의 결과는 한인 후손에 대한 접근이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인 동포애를 강조하거나 한국의 전통문화를 강요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만이 멕시코 사회에 동화되어 있는 한인 후손들을 한민족공동체로 끌어들이고 활발하게 참여시킬 수 있다. 여기서 김대환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민족 성원과 더불어 동일 민족에 소속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경우의 의의 그것이 곧 민족의식이다.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친화감정이나 귀속의식이 되며, 타민족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이나 때로는 대립의식과도 서로 맥을 통하게 된다”(1985, 30).

한인 후손들에 대한 정책대안은, 혈통에 의한 민족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한인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당히 진행된 혈통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고 언어와 문화양식의 장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에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⁷⁾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와 관심을 유지시키면서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한인 후손들의 내면에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인 후손들이 원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느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한인 후손들을 도와주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한인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복수응답했다.

<표 39>

문 화	79명
교 육	50명
경 제	36명
사 회	25명
과 학	1명
관심 없다.	1명

37) 남가주의 한인 연구에서 ‘일체감’과 ‘공동이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시키자는 유의영의 모델이 멕시코 한인 후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참고: 유의영 1984, 182-188).

한인 후손들이 원하는 분야는 압도적으로 문화부분이 많았고 다음이 교육이었다. 두 문항이 사실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복수응답한 사람의 67%(129/192명)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인 시각에서 답한 한인 후손이 19% (36/192명)에 불과하지만, 한인 후손들의 경제적인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한인 후손들의 상당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실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면의식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기 이민자와의 관계를 원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복수응답했다.

<표 40>

친구처럼 편하게 사귀기 위해	54명
뿌리를 찾아서	50명
한국어(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36명
경제적인 이유	9명
좀 더 결속하기 위해	1명

후기 이민자와 관계를 원하는 이유로, 친구처럼 편하게 사귀기 위해서가 36% (54/150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뿌리를 찾으려는 시각이 33% (50/150명)이다. 한국어(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후기 이민자와의 관계를 원한다는 대답은 24%(36/150명)이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와 한국어(역사, 문화)를 배우려는 이유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합한다면 한인 후손 60% (90/150명)가 문화적인 동인에 의해 후기 이민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동인이 민족적인 동인보다 높으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인 이유는 6%(9/150명)로, 이전 설문대답인 19% (36/191명)보다 낮았다. 이것은 한인 후손들이 후기 이민자들과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관계를 선호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⁸⁾

반면에, 후기 이민자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라는 설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표 41>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	4명
시간이 없다.	2명
후기 이민자가 한인 후손을 무시한다.	1명
후기 이민자가 한인 후손을 이용한다.	1명

후기 이민자와의 관계를 대부분 원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응답한 한인 후손의 수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후기 이민자들과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 후손을 무시하고 이용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각각 1명씩 있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후기 이민자와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후기 이민자와 한국인들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복수응답했다(다양한 응답을 본인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38) 아벨 김(Abel Kim, 1940년 생, 3세대)은, 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목경 지방회를 이끈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김익주의 손자이다. 김익주의 독립운동이 인정되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1999년 8월 15일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기도 했다. 할머니(이민 1세)가 전수해 준, 화장품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벨 김은, 할아버지 김익주가 독립자금으로 낸 돈은 기부금이기도 하지만 채권 형태로 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보상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오래 전부터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받는 연금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 보존처에서는 아벨 김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금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 때 북한 대사관과도 짧은 관계를 갖기도 했었던 아벨 김은 매우 분노해 있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많은 독립자금을 보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잘 살고 멕시코에 남아 있는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모순이 아닌가?”

<표 42-1> 민족의식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15명
민족의식	2명

<표 42-2> 성격

상냥하다.	12명	노인 공경	5명	귀족적이다.	3명
타인 존경	4명	예의	3명	친화적이다.	2명
정직하다.	2명	청결	2명	조용하다.	1명
잘 웃는다.	1명	명랑	1명	협동의식.	1명

<표 42-3> 문화

문화	13명
신비하다.	1명
음식	1명

<표 42-4> 교육

교육	6명
지적이다.	9명
공부를 열심히 한다.	1명

<표 42-5> 삶의 방식

열심히 일한다.	22명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12명
훈련이 잘 되어 있다.	10명
책임의식이 높다.	1명

<표 42-6> 경제

경제 발전, 기술	9명
성장 능력	3명
돈을 잘 번다.	1명

<표 42-7> 농 업

농 업	1명
-----	----

<표 42-8> 기 타

접촉이 없어서 모르겠다.	2명
---------------	----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 후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인상은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다 [31% (45/146명)]. 하지만 본 문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본다면 복수응답한 한인 후손들의 40% (58/146명)가 후기 이민자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후기 이민자들의 예의바른 행동을 비롯한 밝은 성격이 25%(37/146명)를 차지하며 한인 후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성격과 문화, 교육을 모두 문화적인 분류로 묶는다면 문화적인 이미지가 47%(68/146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민족적인 측면에서 응답한 한인의 수는 총 17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본 문항을 순위에 따라 분류한다면, 그 순위는 문화, 경제, 민족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문화가 신비스럽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후손도 1명이 있었다. 한국 문화를 이국취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양 집단 간의 문화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과 후기 이민자들의 어떠한 점을 싫어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복수응답했다.

<표 43-1> 성 격

화를 잘내고 성급하다.	5명	한인끼리 분열되어 서로 싸운다.	5명
믿음성이 없다.	2명	시기심이 강하다.	2명
차갑다.	2명	지적이지 않다.	1명
형식적이다.	1명	수동적이다.	1명

<표 43-2> 폐쇄된 민족의식

폐쇄성	5명	민족주의자	2명	엘리트주의자	2명
멕시코 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2명
우월의식을 갖고 잘난 체 한다.					2명
멕시코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항시 멕시코 정부만 비판한다.					1명

<표 43-3> 한인 후손과의 관계

멕시코에 사는 한인후손을 무시한다.	3명
한인 후손에 무관심하다.	2명
한국어를 못한다고 한인후손을 배척한다.	1명

<표 43-4> 스페인어 문제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2명
한국어만 사용한다.	1명

<표 43-5> 문 화

여성차별이 심하다.	2명
------------	----

<표 43-6> 기 타

마음에 드는 것도 나쁜 것도 없다.	1명
전혀 접촉이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	7명

대부분의 한인 후손들이 본 질문에 응답하기를 매우 꺼려했다.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 후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부정적인 이미지는 37%(19/52명)를 차지한 후기 이민자들의 성격이다. 화를 잘 내고 성급하다는 지적과 후기 한인 이민자끼리 분열되어 싸운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후기 이민자들의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적한 것이 총 14명으로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개 문항 모두를 후기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성격으로 단일화시킨다면 63%(33/52명)로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후기 이민자들이 한인 후손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총 9명으로 17%(9/52명)를 차지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3명이 지적했다.³⁹⁾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인 후손들이 실제로 후기 이민자와 접촉하는 경우는 적었기 때문에 후기 이민자들에 이미지는 피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후기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행태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VI. 맺는 말(정책 대안)

다양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신자유주의의 거센 개방화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구촌 공존공영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립해야 할 시급한 때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결속된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분명, 같은 민족이라는 혈통적인 동질성은 해외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경쟁력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 널리 퍼져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을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통해 결속시켜 대한민국의 세계화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세계화 전략 하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지역과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학계 연구에서 항시 제외되어왔던 멕시코 초기 한인 이민자들에게 맞추었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혼혈, 언어, 민족의식,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민족 공동체를 창

39) 후기 이민자인 전주종과 결혼한 모니카 김(Mónica Kim, 1969년생)은 3세대로 조부모는 순수 한인이었고, 아버지는 멕시코인이었다. 다른 한인 후손들에 비해 후기 이민자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던 그녀는, 자신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의 풍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후기 이민자들이 자신을 배척한다고 토로했다.

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후기 이민자들과의 관계와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멕시코 메리다의 에네켄농장으로 1905년에 노동이민을 떠났던, 천명이 넘는 한인들의 후손은 현재 멕시코의 전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정체성(혈통, 언어, 문화전통)을 상실하고 현지에 동화되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다.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후손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조국과의 조직적인 연계망과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실패했고 혈통과 언어를 포함한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족적 연대감은 상당부분 와해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부계나 모계의 한쪽을 통한 상상과 관념으로 형성된, 모국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재도 후손의 일부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혼돈이 발견되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전이되고 있지는 않다. 멕시코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의식구조와 삶의 방식이 멕시코에 거의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은 높은 혼혈률로 인해 인종학적 거부감을 상당부분 극복했고, 언어와 문화적 일체감을 확보하며 멕시코 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애착’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은 한인 후손들이 한국 음식을 별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국노래를 기억하며, 다양한 한국 제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성급하게 민족정체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민족정체성은 공유하는 민족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개인이 같은 민족에 대한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개인의 행동과 의식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시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문화애착’이 민족 정체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한인 후손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문화적인 차원으로 전이되는 중이거나 전이된 상태

이다. 따라서 한인 후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특징을 한국적인 고정된 시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어네스트 겔너가 주장하듯이, 민족주의의 원리는 공유한 현 상황 속에 뿌리를 내리며, 결코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또 쉽게 부정되지도 않기 때문이다(1988, 81).

따라서 한인 후손에 대한 정책은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혈통이나 민족 개념이 한인 후손들의 강한 응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물론, 한인 2세대와 1950년 이전에 태어난 3세대에게는 민족적 감성과 동정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이민 1세대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1950년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게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편입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민족애착에 착안하여 한인 후손들이 이질적인 2개의 문화양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그들의 생활과 행동양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민족애착이 한인 후손들의 의식에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뿌리의 ‘한’ 부분인 한국을 확인해 보려는 혈연적 애착이며, 이러한 애착이 다양한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⁴⁰⁾

멕시코시 한인 후손들이 한민족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별로 다양한 실천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민족적인 감정과 연민에 기초한 맹목적인 접근이나 일방적인 경제적 도움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것은, 멕시코시 전역에 흩어져 상호간의 교류 없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 후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40)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한인 후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한준상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한인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2-3세대들은 고국을 관광 대상지 정도로 간주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모국의 것을 구매하여 진지하게 자기의 것으로 문체시하지 않아도 정신건강에 전혀 해가 없기 때문이다”(1986, 247).

구심체를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조직체는 대사관이나 후기 이민자의 조직체가 주도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힘을 보태 주어야 한다(이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은 한인 후손들의 주소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사관이나 후기 이민자의 조직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경우, 한인 후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인 후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한인회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존에 있었던 목경지방회가 한인회관이 폐쇄된 이후에 급속히 붕괴되었던 전례를 기억해보더라도 한인회관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인 후손의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혈연적 근거와 문화적 민족애착을 통해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한다. 이후에 한국정부는 한인 후손들의 힘을 결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인 후손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체성의 뿌리로 여기는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체성의 목표를 우리 방식대로 설정하고 한인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으며 공조체제의 근본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후손들은 한국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문화 또한 거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한인 후손들에게 이질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성을 도입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한인 후손들의 내면에 점차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한국 문화와 멕시코 문화를 비교하고 양국 문화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문화교류를 조금씩 확대해야 한다. 상호간의 수용능력을 키우고, 상호이해와 신뢰의 단계를 거쳐 사회, 경제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인 후손들을 ‘열린 한민족공동체’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록 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후기 이민자의 조직체나 뜻 있는 몇 명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해외동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1996, 267). 기본 전략 하에 대사관(정부)과 후기 이민자 조직체는 각종 행사에 한인 후손들을 자주 초대하여 소속감을 높여주고 이질감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와 홍보물 등을 주기적으로 한인 후손들에게 발송하여 연대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상당수의 한인 후손들이 8.15행사에 참여했다가 받은 각종 홍보물을 귀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무용, 음악회, 미술 전시회, 서예전과 같은 각종 행사를 주기적으로 유치하여 한인 후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주도 하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한인 후손과 대한민국(후기 이민자 포함) 사이의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한준상이 지적했듯이, 한국 문화와 모국 언어만의 교육을 강조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1986, 262).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문화도 후기 이민자들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려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일방적인 문화전달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원 내에 체계적인 한글학교를 건립하여 한인 후손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⁴¹⁾

41) 후기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글학교가 1980년대 중반에 생겼다. 초기에는 한국 대사관의 지하공간에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했지만, 현재는 멕시코 고등학교의 건물을 토요일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글학교의 선생님은 총 14명이며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교민부인 9명, 상사부인 2명, 멕시코인 남성과 결혼한 부인 3명). 학생 수는 2004년 1월 현재, 총 142명이다. 유치부 4개 반, 초등부 6개 반, 멕시코 어린이반 1개 반, 멕시코 성인반 1개 반으로 총 12개 반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2004년 1월 24일(토) 현재, 총 142명의 학생 중에 108명이 수업에 출석했다. 한글학교의 학생들은 매월 300페소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며, 한글학교의 운영은 한국 대사관이 매년 지원하는 후원비(금액은 매년 다

한국어 교육이 한인 후손들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습득한 한인 후손들을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체나 후기 이민자들의 사업체와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멕시코 한인 이민의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민의 역사는 각 후손 가족의 역사이며, 자신의 뿌리를 한국과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민역사 수업은 한인 후손들이 자신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며 멕시코에서 살았던 자신의 조부모, 부모가 체험한 구체적인 역사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방면으로 관심을 유인해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인 후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관계의 끈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박물관에는 한인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사진을 보관하여야 한다. 세월이 가면 분실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인 후손의 조직체는 각 가정에 보관된 자료들을 기부 받아 박물관에 보관해야만 한다. 또한 한인 후손들이 직접 자신들의 가계 역사를 서술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인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한인 후손의 조직체는 후기 이민자의 조직체와 공조협력체계를 구

르지만 약 6000-10,000달러)와 지상사협의회가 매년 후원하는 20,000 배소, 그리고 각종 후원금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한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당시와 비교할 때, 중등과정이 모두 폐지되어 있었다. 기존처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5대를 등·하교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한글학교의 운영은 후기 이민자들의 조직체인 한인회 소관이다. 교장은 한인회장이 임명하고 교사는 교장이 판단하여 교민이나 유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한글학교 교육은 한국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씩 진행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육지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후기 이민자들의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잊혀져 가는 한국어와 조금씩 이완되는 정체성의 상실 속도를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2004년 2월 현재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한인 후손은 3명으로, 모두 남매지간이다.

축하여야 한다. 멕시코에서 한인 후손들이 자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일차적인 한국인은 후기 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양 집단 간에는 언어적인 장애가 있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양 집단의 조직체가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인 후손들은 한인회의 일원화를 원하고 있지만, 1990년대 초에 후기 이민자들이 별도의 독립된 한인 조직체를 만들어 분리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원화하기에 앞서 양 집단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노력을 강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그 관계는 혈연적인 공유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양 집단간의 접촉과 교류는 상당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양 집단간에 접촉이 적기 때문에 갈등적인 요소가 표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류가 확대될 경우에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매우 높다.

멕시코의 각계각층으로 진입해 있는 한인 후손들을 후기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연결시키는 종합적인 경제 망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체는 현지 사정과 문화에 익숙하며, 동시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한인 후손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지만 한민족공동체의 훌륭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한인 후손들은 한국 기업체의 멕시코 시장개척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제품의 우호적인 소비자인 동시에 선전자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기업체에 고용된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상호간의 필요와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며, ‘열린 한민족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멕시코의 각 분야로 진출해 있는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에서 언어와 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후기 이민자들을 변호하고 한인공동체를 보호하는 협력 집단으로 변모해야 한다. 후기 이민자

와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능력과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인 후손들이 현지 사회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양 집단의 상호공조는 새로운 열린 한인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이다. 멕시코에서 한인공동체의 출현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힘과 경제력의 확대이며, 동시에 문화의 확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공동체는 폐쇄적인 전통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혈통과 문화적인 공감대에 바탕을 둔, 다원적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체제’여야 한다.

Abstract

Con el aumento de los intercambios entre países, la globalización, iniciada por el neo-liberalismo, se ha transformado en una tendencia internacional que predomina en todo el mundo. En paralelo con esta nueva corriente surgieron en Corea varias opiniones que consolidan las redes internacionales entre Corea y los emigrantes coreanos, creando una nueva comunidad internacional de una misma raza.

Este estudio ha sido planeado bajo un enfoque globalizador, y se da una gran importancia a los descendientes coreanos que emigraron en 1905 para trabajar en haciendas henequeneras de Mérida. El objetivo de este estudio consiste en investigar el estado actual y los problemas de la identidad nacional (la sangre, el idioma, la conciencia étnica, la cultura tradicional) de los descendientes coreanos que viven en la ciudad de México. También estudiaremos la posibilidad de crear comunidades internacionales de una misma raza.

Muchos de estos descendientes perdieron su identidad étnica, en busca de su propia supervivencia. Durante mucho tiempo vivieron aislados del país, de su contexto histórico y cultural, y terminaron perdiendo la raza, el idioma e, incluso, su cultura, adaptándose drásticamente al modo de

ser y la cultura del pueblo mexicano, y con ello, han sido capaces de entrar con éxito a los mecanismos de la nueva sociedad. Si se puede hablar de restos culturales de la tradición coreana, quizá de lo que si podemos hacerlo es de los intereses que en estos descendientes despierta nuestra cultura.

El proyecto de incorporación debe ser preparado y realizado con tiempo y con políticas de largo plazo, pero también con apoyos por parte del gobierno. Un acercamiento étnico y económico precipitado no puede resultar demasiado eficaz. Hay que empezar por respetar su modo de ser y cultura, y aceptar la multipluralidad para alimentar en ellos ese orgullo étnico de sus antepasados. El acercamiento debe ser progresivo y, siempre, dentro de las bases de un intercambio cultural y de las necesidades e intereses de ambos grupos, o sea, bajo las premisas de una sociedad heterogénea y plural.

Key Words : Emigración de los coreanos a México, Descendientes coreanos en México, Identidad de los descendientes coreanos en la Ciudad de México / 멕시코 한인 이민, 멕시코 한인 후손, 멕시코시 한인 후손의 정체성

논문투고일자: 2004. 07. 07

심사완료일자: 2004. 08. 04

게재확정일자: 2004. 08. 16

참고문헌

-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I: 멕시코·쿠바』(2003),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 국제문제조사연구소(1996), 『해외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해외동포의 생활실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나.
- 김대환(1985), 『한국인의 민족의식』, 이화여자대학교.
- 민병갑(1991), 「한인 커뮤니티 조직 및 한인들의 아이덴티티 유지」, 『미국속의 한국인』, 유림문화사, pp. 175-196.
- 어네스트 켈너(1988),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 유의영(1984), 『남가주의 한인: 그 사회와 문화, 재외한인의 사회와 문화』, 한국국제문화협회.
- 윤태현(1996), 「중남미 이민의 과거와 현재: 1905년부터 현재」, 외교, No. 39, pp. 91-100.
- 이광규(1997), 『국제화 시대의 한민족의 진로』, 서울대학교.
- _____(2000),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 이종득(2003),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 농장생활(1905-1909)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No. 28, pp. 693-715.
- 툼 네인(1981), 「민족주의의 양면성」,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백낙청 엮음), 창작과 비평사, pp. 220-261.
- 한중원, 「나의 멕시코 생활 50년」, *The Korea migration news*, 단기 4294년 3월 15일(수).
- 한준상(1986), 『한인교포사회와 교육문제』, 삼성출판사.
- 호세 산체스 박(1985), 「교포역설」, 이영숙 편, 『유카탄의 첫 코리언 - 제물포에서 유카탄까지 그 개척의 길』, 인문당, pp. 33-174.
- 현규환(1967), 「멕시코 편」, 『한국유이민사』하, 어문각, pp. 974-1007.
- 木村健二(1983), 「20世紀初頭における朝鮮人のソキシコ移民」, *商學研究科紀要 16*, 早稻田大學大學院 商學研究科, pp. 201-218.
- Romero Castilla, Alfredo, "Los coreanos en México", *Las Permanencias*, pp. 96-105.

각종 발굴 사료(이민서류, 편지, 사진, 기록물 등).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독립기념관 사료

멕시코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자료

신한민보

일본 외무성 “외교 자료관”의 해제된 비밀문서.